

# ‘운명의 5일’ 금호타이어 위기 고조

### 노사 교섭 뚜렷한 성과 없어...산은, 법정관리 서류 요청

### 26일 처리방안 결정...윤장현 시장·경제계 나서 합의 독려

금호타이어가 채권 만기 연장 기한(26일)을 6일 앞두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19일 금호타이어측에 메일을 보내 법정관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에 대한 노사 합의 최종 기한(26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채권단 안팎의 분위기가, 채권단 사이에서는 26일까지 노사 합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청산 절차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

까지 터져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오는 26일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하는 채권단 이사회를 열고 1개월 전 확정된 ‘외부자본 유지를 위한 정상화 방안’과 약정서 체결 여부에 따른 금호타이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채권단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조3000억 원의 차입금 만기 1년 연장 과 이자율 인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채권단은 오는 26일까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약정서를 노사 합의로 체결할 것을 조건에 포함했었다.

노사는 이에따라 수차례 교섭을 진행중이지만 합의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무급 휴무 등 경쟁력 향상 방안과 임금 동결, 삭감 등이 담겨 있는 정상화 계획에 대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사는 하지만 최종 기한인 26일 전까지 계속 교섭을 진행하며 의견을 교환한다는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20일 금호타이어를 방문, 노사를 만나 합의점을 찾는데 힘을 보탬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안팎에서는 최근 워크아웃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공시한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시 등 지역 경제계도 금호타이어 노사를 만나 합의점을 찾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파국을 면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감이 나온다.

노사 간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는 기업개선타이어(워크아웃) 또는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PF)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희망퇴직자 모집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말 사무직 10명이 이어 지난 6일까지 광주·곡성·평택공장 생산직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자 모집 마감 결과, 당초 자구안에 담긴 191명에 못 미치는 40명 가량이 최종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가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 구성원의 동참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5.12 (-27.70)	↑ 금리 (국고채 3년) 2.32% (+0.01)
↓ 코스닥 864.41 (-11.40)	↑ 환율 (USD) 1073.50원 (+5.90)



## 광주은행, 종이신청서 사라진다

### 전자문서 대체시스템 시행...4월 전 영업점 확대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고객이 작성하는 각종 신청서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PPR(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 시스템을 시행한다.

지난해 2월부터 인지소프트와 함께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 12월에 시범 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2월 20일부터 16개 지점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4월 2일에는 지방은행 최초로 전 영업점 창구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PPR시스템은 디지털 모니터와 전자펜, 전자서서 등 디지털 요소를 접목해 종이 없이도 친환경 디지털창구시스템으로,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는 디지털금융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다.

고객들은 모바일을 통한 신청서 작성

이 가능하고 중복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 및 서명을 한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은행직원들은 종이 문서로 일일이 출력하면서 생기는 번거로움과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고객에게 보다 심도 깊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 장수연 디지털본부 부장은 “금년은 오픈뱅킹플랫폼(OBP), Branch Digital Transformation(BDT) 등 금융디지털화 완성의 해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디지털뱅크의 근간이 되는 PPR시스템을 조속히 완성해, 지역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고객응대시간 확보로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희기자 lion@

## 호남 건설현장 안전점검

### 익산국토청 3월까지 1천여곳

익산국토청이 광주·전남, 전북지역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익산청이 호남지방국토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 46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200여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시공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안전점검은 익산국토청 소속 직원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단(18명)이 6개조로 나눠 진행한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익산국토청은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해당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시정토록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밀 점검을 거쳐 영업·자격 정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철홍 익산국토청장은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감리원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효성, 인도에 스파텍스 공장...글로벌 경영 ‘속도’

### 아우랑가바드시 인근 2019년까지 1억달러 투자

조현준(사진) 효성 회장이 인도에 처음으로 스파텍스(합성섬유)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글로벌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효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2019년까지 마하라슈트라주(마) 아우랑가바드시(마)에 스파텍스 공장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효성이 인도에 스파텍스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 회장은 지난 8일 베트남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총리를 만나 현지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한 지 열흘 만에 인도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효성의 스파텍스 브랜드인 ‘크레오라’는 현재 인도에서 6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효성은 공장 신설을



통해 점유율 70%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효성 스파텍스 공장은 아우랑가바드시 인근 아우라 공단에 지어진다. 부지는 40만 헥타르(12만평) 규모이며 2019년까지 건립된다.

효성은 우선 공장 신설을 위해 1차로 1억달러를 투자기로 했고 향후 시장 수요 등을 지켜보면서 투자를 늘려갈 방침이다.

인도 스파텍스 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성장해왔으며 앞으로도 연평균 1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은 “인도는 세계 최대 섬유 시장 중 하나로 소비 시장 규모가 괄목할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

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효성이 신설 공장을 세우게 된 만큼 앞으로도 효성과 인도 경제가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도 이에 “한국은 인도의 고도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효성의 투자로 인도의 미래 경쟁력과 산업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인도는 효성 공장 신설이 제직, 편직, 염 가공, 봉제 등 유관 사업을 발전시키면서 인근 지역의 우수 인재 채용 등 고용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회장은 이날 산업용 섬유, 중공업, 금융자동화기기 등 다른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한편, 중공업 부문에서는 인도 국영송전공사(PCGIL) 입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100년 향한 호남 정통지

**광주일보**

발행처: 광주광역시 동구

## 광주·전남, 청년 이탈 가속

### 호남통계청 조사 순 유출 8118명...10·20대 64% 차지

젊은층의 탈(脫) 광주·전남 현상이 심각하다. 언제쯤이면 청년들이 떠나고 싶은 광주·전남이 될까.

20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해 광주·전남 유입·출 인구를 분석한 결과, 광주는 유입 6만5964명, 유출 7만4082명 등으로 순 유출이 8118명에 달했다.

전남은 유입 9만332명, 유출 9만3379명

으로 순 유출이 3047명에 이르렀다.

순 유출 인구는 광주의 경우 10대 1011명(13.7%), 20대 4098명(50.5%), 30대 1270명(15.6%), 40대 1006명(12.4%), 50대 1374명(16.9) 등으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전남은 10대(634명), 20대(7148명)는 전남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았고 30대(410명), 40대(1750명), 50대(2632명), 60대

(1641명)는 전남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20대 유출인구가 많은 것은 취업과 학업을 위해 수도권 등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전남에서 30대 이상, 특히 50대에서 유입 인구가 증가한 것은 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도시 직장인 등의 귀농·귀촌 현상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에서 최근 몇 년 사이 20대의 순 유출 인구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광주 우수 中企 제품 판로 지원

### 28일까지 거래촉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주상식)는 19일 ‘2018년 중기제품 거래 촉진지원사업(HIT500)’ 1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제품거래 촉진지원사업은 창업 초기나 신제품을 출시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발굴, 온라인홍보부터 테스트마케팅을 통한 판로확대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창업 3년 미만 또는 신제품 출시 2년 이내 생활·소비재 제품을 개발·생산한 기업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100여개의 우수 중기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품 선정은 1차 서류평가와 온라인 평가를 거친 뒤 2차 실물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모집마감은 오는 28일까지며 홈페이지(www.hit500.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중진공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 많이 선정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중기제품들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